

[종합·해설]

“28일 北-美 양자회동 합의”

日 아사히신문 보도 “中 우다웨이 포함, 3자회동 될 듯”

6자 수석대표 속속 베이징으로…주중 연쇄회동 가능성

미국과 북한 양국 정부는 오는 28일 베이징(北京)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에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포함한 3자 회동의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북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들 3자는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극비 회동을 갖고 6자회담 재개 합의를 발표한 바 있으나 회담 재개의 형식과 일정 등의 조정에 난항을 겪자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 최종적인 합의를 목표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미·북 양국은 위상

더의 국무부와 뉴욕 북한 유엔대표부의 채널을 통해,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수석대표간 연쇄회동이 이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27일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태양주 국장은 26일부터 3일간 중국을 방문하지만, 28일의 3자 회동에는 끝지 못하고 미·중·양국과 개별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김계관 부상과의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핵실험 문제와 함께 납치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에 대해 북한의 반발이 커 접촉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27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 베이징에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등 5개국 6자회담 수석대표간 연쇄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당국자는 “천 본부장이 6자회담 준비 차원에서 27일 중국을 방문,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회담 재개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국간의 조율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우리 의견을 파력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미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힌 미국과 일본 수석대표에 이어 천 본부장까지 중국을 찾을 경우 4~5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베이징에 모이게 돼 수석대표들간의 연쇄 양자 회동은 물론 3~5개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6자회담 예비라운드가 개최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먹고 노는 비용 줄었다

경기둔화 영향…3분기 3% 감소

지난 3·4분기 경기둔화와 추석명절 이동 효과로 식료품, 교양·오락, 이미용·장신구·잡비 등의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증가율도 6분기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6일 통계청의 올해 3·4분기 전국가구의 10대 품목별 월평균 소비지출 자료에 따르면 식료품 지출은 54만2천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0% 줄었다. 식료품 지출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3·4분기 이후 1년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식료품 중 외식비는 25만1천원으로 2.1% 늘어났다.

또 교양·오락비 지출 규모는 10만4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3%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줄어 전국의 가구들이 경기둔화로 소득이 크게 개선되지 않자 영화관람, 서적 구입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용·장신구·잡비 등 기타소비지출도 30만3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7% 감소했으며 잡비는 22만2천원으로 7.6% 줄었다.

/연합뉴스

II 현장과 시각 II

전남도의원들이 달라졌다



정 후식

정치부 차장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 전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풍속도가 약간 달라졌다.

지난 16일부터 1주일동안 실시된 제8대 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자료 수집과 분석 등 면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개인 보좌관을 고용하는가 하면 상임위가 같은 초선 의원들끼리 숙식을 함께 하며 그룹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했다. 의원사무실에서 새벽까지 질의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도 더러 눈에 띄었다.

이호균 의원(민주·목포2)과 국영애 의원(우리·비례)은 자비를 들여 개인 보좌관을 고용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고승자 의원(비례)은 당시 차원에서 보좌관을 배치해 감사 준비를 지원했다. 광주시의원들의 경우 수년 전부터 자비로 개인 보좌관을 두는 게 관행이 됐지만 전남도의회에선 보기 드문 경향이었다.

경제관문화위원회 소속 서일용 의원(민주·여수3)과 간사인 김병욱 의원(민주·해남2) 등은 상임위가 열리는 기간에 이호균 의원의 목포 집에서 새벽 2~3시까지 숙식과 토론을 함께 하며 다음날 감사에 대비했다. 현안 문제에 대해선 중복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의원들간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다.

보충 질문과 추가 자료 요구가 많아 감사 종료 시간이 오후 6시를 훌쩍 넘기는 위원회도 많았다. 지난 17일 전남무역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 테크노파크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관문화위원회 감사는 밤 10시40분에야 종료됐으며, 21일 관광문화국에 대한 감사도 밤 9시께 끝났다. 건설 소방위원회의 감사도 밤 8~9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저녁식사를 도시락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전체 의원의 57%(29명)에 달하는 초선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같은 열기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도정 질의에도 이어질 조짐이다. 이탁우 운영위원장은 “하루 5명 정도만 질의가 가능한 한데도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17명이 신청해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도 “의원들의 자료 요구 건수가 1천건을 넘어서는 등 올해 감사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다”며 “유급제 도입 등으로 한껏 높아진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질의는 집행부의 행정 수행과 예산 집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 ‘감시와 견제’의 기본 척자지만 의원들에게 자신의 자질을 검증받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상임위별 추경 및 내년 예산안 심사와 예결위 활동에도 이같은 열의가 식지 않고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who@kwangju.co.kr



지난 25일 북한 청소년들이 평양 도심인 김일성 광장에서 내년 봄 공연할 예정인 집단체조와 아리랑을 연습하고 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Shin Young Park Hotel

한·중·일·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여행과 함께하는 친구들은 물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한·한·한

12층은 카페로

SP STEEL

가전용 알라강판 전문가공 SSC를 생산하고 출발합니다!

에스피스틸(주)